

다양한 시각으로 새만금을 보다

군산시,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대응 세미나 개최... 군산시 귀속당위성 적극 알리기

군산시가 16일 군산시 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새만금 세미나는 분야별 주제 발표를 통해 새만금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상정안건인 동서도로와 만경공구 방수제 및 군산새만금신항 방파제에 대한 군산시 귀속 당위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영일 군산시의장을 비롯해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위원과 많은 군산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항

만·역사 총 3가지 분야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첫 주제인 행정분야 발표에서는 우석대학교 김희곤 명예교수의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설정방안'을 통해 새만금 지역에 대한 군산시 귀속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다.

항만분야에서는 성결대학교 정태원 교수의 '군산항과 신항의 기능 재정립을 통한 One-Port 방안 연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군산새만금신항은 마땅히 군산시 관할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역사분야에서는 군산대학교 김중수

교수의 '새만금 해역과 고군산군도는 역사적으로 군산 관할이었다.'라는 주제로 역사적으로도 새만금 일대는 군산시 귀속에 틀림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새만금을 바라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새만금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한 창의적인 귀속 논리를 개발하는데 적극 매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운영하는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자원순환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효과

익산시, 'AI 무인회수기' ... 자원순환 홍보대사 '역할'

익산시가 운영하는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자원순환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AI 무인회수기는 지난해 12월 첫 운영 시작 이후 5개월 만인 올해 4월 말까지 8만2,652개(약 1.653kg)의 투명페트병을 수거했다. 누적 이용자 수는 1,398명으로 다달이 수거량과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시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배산체육공원, 중앙체육공원, 육이종합지원센터에 1대씩 투명페트병 전용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설치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에 투명페트병을 투입하면 1개당 10포인트씩 적립되어 누적 포인트가 2,000점 이상일

경우 수퍼민 홈페이지나 핸드폰 앱에서 회원가입 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기계화면에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투입구가 열리는 라벨을 제거한 깨끗한 투명페트병을 넣으면 된다. 교환개수는 1일 1인당 50개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실천으로 회수된 투명페트병은 재활용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한다"며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통해 시민들이 자원순환의 기쁨이 될 재활용 분리배출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한센인의 날' 참여... 요양병원 건립 시급 알려

익산시민, 한센인 마을 등 400여명 '국립소록도 병원 개원 107주년' 방문

익산 한센인 마을주민들이 '제20회 한센인의 날' 행사에 대해 참여해 요양 병원 건립의 시급성을 알렸다.

익산마을 등 4개 한센인 주민 400여명은 16일 국립소록도병원, (사)한국한센총연합회가 주최하는 국립소록도 병원 개원 107주년 및 제20회 한센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 10대를 이용해 소록도를 방문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한센인 2,700여명의 한센 가족과 초청인사, 병원 관계자 등 3,200여 명이 참여해 병원 역사 및 발전취를 되새기고 소외된 한센인과 함께하는 축하가림 행사 및

여울림 장으로 진행됐다.

익산 한센인 주민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전국에서 전북지역이 가장 밀집돼 있고 사회적 약자이며 차원에서 익산에 한센인 전문 요양병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2년 말 기준 국립 소록도 병원 한센사업 대상자보다 익산시 한센사업 대상자가 많지만 한센 전문 치료 시설이 없어 건립의 시급성이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센인들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소록도 등에 강제 이주했다가 1948년 왕궁면에 요양소 소생원 설립을 시작

로 한센인 다수가 익산으로 이주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전국 한센인구의 10%가 전북에 거주하고 있고, 전북 한센 인구의 54%가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소록도를 방문한 주민은 "이번 행사가 한센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한센인 친목 도모 및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차별과 편견 속에 살아온 생애 다시 한번 소외되지 않도록 한센 요양병원 익산 건립·유치에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06년11월1일 이전 발급 주민등록증 소지자 무료 재발급

군산시는 위·변조에 취약하고 수록된 사진이 오래돼 본인확인이 어려운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 소지자에 대한 무료 재발급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발급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만져보면 옅어지도록 축간을 느낄 수 있도록 돌출문자로 처리됐다.

또한, 좌측상단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 좌측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

를 적용하고 있어 특별한 도구 없이 육안으로 위·변조 식별이 가능하다.

그러나,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1382 또는 정부24를 이용해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이용해 이용자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무늬(QR)를 촬영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경우 주소에서 등록하도록 하여 실물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수록사항이 동일하게 스마트폰에 표시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 소지자 외에도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주민등록증의 사진이나 글자가 자연적으로 훼손되어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 뒷면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재발급 신청은 주민등록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가로 3.5cm/세로 4.5cm)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고, 신청 시 지정된 주민센터에서 수령 할 수 있으며, 등기료(3,800원)를 본인이 부담하면 원하는 주소로 직접 배송도 가능하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 공동 취업박람회

익산시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과 공동으로 16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을 위한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16일 익산청년시청에서 열린 다이로움 박람회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제조업인 코아비이오, 삼익유가공, 케이앤에스, 쥬요, 비엘, SCID 및 하림산업, 선해수산, 싱그린에프에스, 동우팜투에이블 10개사가 참가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12개 기업은 간접참여로 33명을 채용예정이다.

취업박람회날 현장면접에 구인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은 구직자 연결 등 계속 사후 관리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글로벌 식품수도로 도약할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정책과 비전, 익산시 일자리정책을 비롯해 고용부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사업'과 '군산대학교 일자리정책' 홍보 부스를 운영해 청년의 취업시장을 해결해 주었다.

정현을 시장은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소통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매일 제공해 취업박람회가 정례화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구인구직 플랫폼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청년시청에서 매일 세 번째 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조선업도약센터 일리치 매칭 대전 개최

전북조선업도약센터가 오는 23일 대전광역시 대전무역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선업 일자리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충남 중장년 일자리센터,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대전고용복지센터와 협업으로 최근 조선산업 경기 회복에 따른 기술 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선박 블록 생산을 담당할 현장 기술인력 확충을 위해 추진한다.

이번 대전무역회관에서 열리는 조선업 일자리 매칭데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중 8개사(△(주)현대포스, △(유)한서 △신해ENG, △민성기업, △백산PHD, △부성산업, △(주)남원, △(주)해성)가 참여해 1:1 현장 채용면접을 통해 용접, 도장 신호사 전장크레인운전 등의 직무에 8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찾아가는 의료급여 제도 안내 읍면동 순회교육

군산시는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총 5회에 걸쳐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급여 과다 이용 예방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급여 제도 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순회 교육'은 의료급여관리사 5명이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등 총 300여명을 대상으로 미성동의 4개 면·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된다.

앞서 지난 11일 실시한 읍면동 순회교육은 복지정책과 의료보장팀이 의료기관 이용방법과 절차 및 주의사항, 급여일수 연장 신청, 올바른 약 복용법,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 제도와 사례관리사업 전반에 대해 교육했다. 또,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급여수급자와 1:1 개인별 맞춤형 교육 순으로 실시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의료 이용 공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어 교육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